여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놓고 '정면충돌'

野 "대선은 국정원 선거쿠데타…朴대통령 책임져야"

與 "국정원 대북활동 매도…野, 매관매직·인권유린"

국정조사 첫 증인 출석 남재준 "국민 심려 끼쳐 송구"

여야는 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놓고 거세게 격돌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지상파 3사가 초반 회의내용을 생중계하자 각각 주어진 20분의 기조발언 시간을 최대한 활용,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성토한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했다.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지난 대선은 불법 선거였다"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경찰청이 허위 수사 발표를 해 결정적으로 표심을 왜곡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작년 12월16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이뤄지기 3시간 전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이라고 말한 동영상을 상영하며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사전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원세훈의 국정원은 선거쿠데타를 했고 남재준의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 쿠데타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대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부장이 부산 지역 유세에서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언급한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등 국정원의 대화록 유출을 문제삼으며 "대통령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으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민주당이 대선 패색이 짙어져 가자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공격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국정원 고유 활동인 대북활동을 매도하고 공무원 처소를 불법선거운동 아지트로 호도하며 불법 감금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선거개입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정치공세"라면서 "민주당 특정정파의 대선패배 책임 회피이자 당권 우위 확보 등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대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말과 간부소개, 새누리당, 민주당 각 두명씩 네 의원의 기조발언(각 10분)만 공개됐으며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역대 국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남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선 "진위를 떠나 저희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비밀 등의 사유로 소상히 알릴 수 없었고, 때때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댓글 사건이 대북심리전 차원에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날 국조 특위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방송 3사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국정원 기관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후 2시로 늦춰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남재준 국정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 출석, 의원들의 기조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 갖자"

황우여 역제안…김한길 "형식·의전 얽매이지 않겠다"

靑 "검토해보겠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정국 난맥상을 풀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참석하는 3자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국회 얘기를 하는 것은 여야회담 뒤 필요할 때 해도 충분하지만, 국정현안을 일거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대표와 함께 대통령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3자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회담을 수락해 국정현안 해결의 길을 열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아주 위중한 문제들이 산적한 이때 정치권이 정쟁을 접고 미래지향적 국익에 충실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집권 초기 힘차게 일할 수 있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민주당이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여야가 정쟁의 촛불을 끄고 민생의 횃불을 함께 들고 국민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 모두 말을 접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보여 신뢰를 쌓아갈 때임을 강조한다.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제안을 들었다"면서 "일단 황 대표의 제안이 있었으니 검토해보겠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김관영 수석 대변인을 통해 "정국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청와대의 공식 제안이 있다면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3자 회담의 형식으로라도 만나겠다며 공식 제안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우리는 박 대통령을 만나 현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역량있는 분" 野 "끔찍한 인선"

靑 비서실장 인사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란 평가를 내놨다.

특히 김 신임 실장에 대해 "국회의원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입법·행정에 걸쳐 탁월한 경륜을 갖춘 분"이라며 "박 대통령을 훌륭하게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 수많은 국정과제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김 신임 비서실장이 유신헌법 초안 마련 참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주도, 1992년 초원 복집 사건 주도 등의 전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비서실장일지 모르나 우리 국민에게는 가장 끔찍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이자 친박 원로그룹인 7인회 멤버로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하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 근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제 대통령이 나서라는 야당들의 목소리를 이번 인사로 깔고 뭉개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제 진정 소통의 장으로 나오길 당부드린다"고 논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국정원 국조' 당내 파열음

핵심 증인 채택싸고 지도부-특위 이견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협상 전략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조 정상화에 방점을 둔 원내 지도부와 '김·세(김무성·권영세) 증인 관철' 요구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국조특위간에 의견차이가 빚어지면서 또 한번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5일째인 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과 국정원 개혁을 내세웠지만 이 같은 내부 균열로 투쟁동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불출석시 고발, 기간연장 등을 얻어내는 선에서 국조를 정상화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가 이런 주장을 주도했으며 김한길 대표도 공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증인채택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며 '원·판(원세훈·김용판)'에 대한 출석 담보, 국정원 직원의 증언 담보, 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고 전날 협상 경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국조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세'의 출석 없이는 국조가 의미가 없다"는 특위내 의견을 전달, 원내 지도부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최고위원은 의총에서도 '김·세' 증인채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가 여권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미없는 국조를 할 바에야 장외에서 국민의 힘을 끌어모으는데 집중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대립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도부 쪽에서는 "판을 깨려는 시도", "지도부 흔들기"라며 불편해하는 기색이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강경파가 포진한 특위 쪽에서는 "지도부의 투쟁 의지가 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30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국정원 국조에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국조 철저히"

시국선언 교수 모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의 교수들이 5일 국회에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 70여 개 대학 1900여 명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연구자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국회는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사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사태에 관련된 국정원 및 경찰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카페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널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